

■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한국특허정보원(원장 김 열)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특허정보원을 포함한 총 196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이 강하고, 또한 국가 지식재산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투명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 팀장, 그룹장 내부공모제 실시

정보원은 지난 3월 조직 개편과 함께 능력과 소신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팀장과 그룹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이들 직책에 대한 내부공모제를 실시했다. 내부공모제는 기존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하던 방식에서 각 직급별 공모기준에 해당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이들을 심사하여 최종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특히 내부 직원의 참여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